



7월 직장인 월급 350만원...임시직 급증

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근로시간은 2.6% ↑

물가인상 반영 1~7월 월평균 실질임금 332만1000원



지난 7월 근로자 평균 월급은 350만원 수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인상을 반영한 1~7월 누계 실질임금도 월 평균 332만원으로 2.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의 '2019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기준시점 7월)를 보면,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48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8%(9만6000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69만 3000원으로 2.7%(9만7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51만6000원으로 5.6%(8만원)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5월·6월에 비해 조금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인 것은 전년동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타결이 전년 7월에 지급된 것과 일부 산업의 특별급여 지급체계 변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용 300인 미만의 경우 316만 6000원으로 3.4%(10만5000원), 300인 이상은 517만5000원으로 0.4%(1만9000원) 올랐다.

물가인상을 반영한 1~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2만 1000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2.6%(8만6000원) 늘었다.

1~7월 누계 임금총액은 월평균 347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11만원) 늘었다.

산업별로 임금총액이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576만원), 전

기·가스·전기·수도사업(536만 9000원) 순이며,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8만6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30만1000원) 순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7월 기준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7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4시간(2.6%) 증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근로시간 증가는 근로일수(21.6일)가 전년동월대비 0.6일(2.9%) 늘어난 데 기인한다.

고용 부문을 살펴보면, 8월말 기준 사업체(종사자 1인 이상)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2만3000명(1.8%) 증가했다.

상용근로자가 1526만2000명으로 25만8000명(1.7%), 임시일용은 185만6000명으로 8만명(4.5%) 늘었다.

다만 기타종사자는 1만5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로 금융·보험업에서(프리랜서 격인)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고용이 빠지고 있다"며 "금융·보험업은 상용 종사자가 느는 반면, 기타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뉴스1

100만원 벌어 20만원 월세 낸다

소비 중 주거비 비중, 빈곤층에서 더 크고 빠르게 증가

우리나라 국민이 한 달간 버는 돈의 10% 이상이 주거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 주거비 비중은 지난해 들어 더 커졌다. 특히 1분위인 최하층은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키우려 하지만 소득의 상당액이 주거비로 빠져나가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2019년 가을호: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가구의 주거비 추이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가구가 한 달마다 지불하는 주거비의 평균은 28만5000원이었다. 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인 253만 8000원의 11.2%에 달했다. 이는 전년 11.1%보다 증가한 수치다.

주거비는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 속도도 다른 항목에 비해 높다. 주거비에 해당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주거·수도·광열' 부문은 △식료품·비주류음료(14.4%) △음식·숙박(13.8%) △교통(13.7%)에 이어 전체 가계 소비의 4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2010~2018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은 주거·수도·광열이 3.2%로 앞의 3개 항목들보다 1%p 이상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고, 증가 속도도 더 빠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분위 가구가 7.7%에 불과한 반면 1분위 가구는 20.4%에 달했다. 5분위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하고, 1분위는 반대로 소득 하위 20% 가구를 의미한다.

1분위 가구의 2010~2018년간 연평균 주거비 증가율은 3.9%로 전체 소득분위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주거비 증가율은 2.5~3.0% 사이에 머물러 낮은 편에 속했다.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은 더 크고 빠르게 불어나는 셈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주거비 부담 심화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여타 소비지출 및 소비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